

잘 나가는 K뷰티... ODM·OEM·中企 등 제조기업 신성장

(제조자개발생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코스맥스 연 매출 2조 눈앞

선진뷰티사이언스

3분기 창사이래 최대 실적
아이레시피 신제품 공개

국내 화장품 ODM(제조자개발생산)·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시장에서 업계 선두업체뿐 아니라 중소 화장품 제조 기업들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뷰티 산업에 다양성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는 올해 연 매출 2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코스맥스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1조6081억원, 누적 영업이익 1356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매출액은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이미 지난 2023년 연간 영업이익 1157억원을 넘어섰다. 코스맥스는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3분기 연속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27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646테라스에서 열린 '세라마이드 유자 바이오 클렌징 오일' 출시 기념식에서 이성호 선진뷰티사이언스 대표가 '클린뷰티 2.0' 시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선진뷰티사이언스

코스맥스의 이 같은 성장에는 특히 기반 품질 경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코스맥스가 현재까지 국내에서 누적인 출원 특허 수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600건을 넘겨, 국내 ODM 업계에서 특허 출원 1위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 등록 특허 수는 650여 건으로 업계 최다 건수라는 것이 코스맥스 측 설명이다.

코스맥스는 화장품 소재를 비롯해 미생물, 화장품 용기 등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강한 특허로 관리하며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소재 제조 전문 회사인 선진뷰티사이언스도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창사이래 최대 누적 실적을 기록했다. 선진뷰티사이언스의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한 609억원, 누적 영업이익은 43% 급증한 101억원이다.

올해 3분기 단일 실적만 살펴보면 매출액은 182억원, 영업이익은 25억원으

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2%, 19% 늘었다.

한편 이성호 선진뷰티사이언스대표 이사는 이날 자사 클린뷰티 브랜드 아이레시피의 신제품 '세라마이드 유자 바이오 클렌징 오일'을 공개했다. 제품 원료부터 소재, 처방까지 화장품 산업 전반을 아우르겠다는 전략이다.

신제품은 피부 친화적인 성분뿐 아니라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기존 오일 제조 방식에서 요구되는 4단계 공정을 2단계로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 소비와 폐기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제품이다.

선진뷰티사이언스 관계자는 "일각에선 대규모 ODM사와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K뷰티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찾기 힘들 수도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선진뷰티사이언스가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구축한 클린테크와 클린뷰티 브랜드 아이레시피는 진정성과 혁신을 갖춘 K뷰티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CJ올리브영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탄탄' 제품군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건기식브랜드 '탄탄' 첫선

CJ올리브영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탄탄'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탄탄' 첫제품군은 체지방 감소 제품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출시되는 신제품은 ▲탄탄 젤리 더블 컷 다이어트 ▲탄탄슬리밍 C3G 다이어트 ▲탄탄슬리밍 바이썬티 등 3종이다.

올리브영은 뷰티와 헬스 관련 역량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강점을 바탕으로 다이어트와 피부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 요구와 발맞춘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 업무방해 혐의 사실 아냐"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지주사 지위, 계열사 관리 강조
"인사·기획·경영 등 업무 권리 있어"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그룹 지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위와 한미약품을 비롯한 모든 계열사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약품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26일 한미약품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고소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계열사 한미약품의 각 정관 및 지주사와 한미약품 사이의 회계·자금업무위탁계약서 규정에 따라 한미약품그룹 전체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 설명이다.

우선 한미사이언스는 "지주사와 계열사 사이의 위탁계약서 제7조 제2항은 인사 외에 재경, 회계, 관재, 정보, 법무, 특허 등에 관한 전문인력, 전문 지식 및 경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의성실로써 한미약품그룹의 인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라며 "그룹의 모든 인사 발령은 당사 인사팀을 경유하고 당사 대표이사 및 임원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해당 위탁계약서 제3조 업무 수행의 범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주사는 한미약품의 인사, 경영기획 등 업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고, 제7조 쌍방의 성실의무에 따라 한미약품은 당사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지주사 업무

프로세스는 송영숙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였던 시기와 다르지 않다. 송영숙 대표 시절에는 라데팡스의 자문을 받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 신설됐고, 송영숙 대표와 전략기획실 실장이던 임주현 부회장의 승인 하에 그룹 전체 운영이 이뤄졌다"며 "현재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에서 한미약품 대표이사/사장으로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미약품은 이러한 한미약품 그룹의 업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인 독자 경영을 강행했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 주장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8월 28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지주사의 동의 및 일체의 협의 없이 한미약품 인사발령 17호로 한미약품 내에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고 신설된 조직의

장에 대한 임명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보예산 집행 및 결재업무, 임종훈의 한미약품 부사장 임명 등에 대해서도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은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미사이언스는 지주사가 진행했던 홍보예산 집행 및 결재업무를 한미약품이 임의로 한미약품 업무로 귀속시킨 후, 합당한 비용처리가 곤란해지자 '지주사가 결재를 안 해주다'고 책임을 전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한미약품 부사장 임명은 한미사이언스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한미약품도 이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임종훈 부사장 임사 후 역할에 대해 특정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이지스마트 구미 추 올리브영 매장 입점

동국제약은 숙취해소제 '이지스마트 구미 추'가 CJ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이어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지스마트 구미 추'는 동국제약의 구강용해 필름 제형 숙취해소제 '이지스마트 필름'을 말랑쫄쫄한 제형으로 구현한 것이다. 음주 전후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하면 된다.

동국제약은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기념해 12월 1+1 행사를 운영하고 내달 7일까지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림대의료원

'위런위로' 모금액 기부

한림대학교의료원이 베풀어린 행사 '위런위로(WeRunWe路)'의 모금액 전액을 화상환자 및 소방관 치료 지원 사업에 기부했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성심병원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모금액 3010만원을 한림화상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화상 환자의 의료비와 간병비, 화재진압과 구급구조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관들의 치료비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에 사용된다.

한편 위런위로 캠페인은 지금까지 약 1억3000만원의 누적 기부금을 달성, 전액 어려운 이웃과 화상 환자, 소방관 치료를 위해 쓰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

페르노리카코리아

'발렌타인-더웨이팅' 출시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모던 클래식 스키치 위스키 브랜드 발렌타인이 '발렌타인 40년 마스터클래스 컬렉션-더 웨이팅(사진)'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더 웨이팅은 선대 마스터 블랜더인 잭 가우다가 1959년부터 1994년까지 직접 관리했던 캐스크 중 40년 이상 숙성된 원액만을 엄선, 샌디 히슬롭의 진두지휘 아래 고도화된 블랜딩 과정을 거쳤다. 국내에는 15병만 입고된다.

/신원선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김경아 대표이사 사장 내정

삼성그룹 최초 여성 전문경영인 바이오시밀러 사업 전반 핵심적 역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그룹 최초로 여성 전문경영인을 내세워 기업 비전을 제시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김경아 부사장(사진)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김경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196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약대학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미국 존스 홉킨스대에서 독성학 박사 학위를 취



득하며 제약·바이오 전문 역량을 쌓았다.

김경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010년 삼성전자 중합기술원 바이오신약개발 수석연구원으로 입사했으며, 2015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합류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개발본부 OI(오픈노베이션)팀, QE(품질엔지니어링)팀, BA(사업분석)팀 등을 두루 거쳤고 현재까지 개발본부장을 맡았다. 특히 바이

오시밀러 개발, 공정, 품질, 인허가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김경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독보적인 전문성과 통섭의 리더십을 발휘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혁신과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인력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만큼 이번 인사가 조직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